

제 10 호 2012년 하반기
(7.1 ~ 12.31)

의정 신식

ULSAN BUK-GU COUNCIL NEWSLETTER

구민 복리증진과 복구 발전을 위해 발로 뛰는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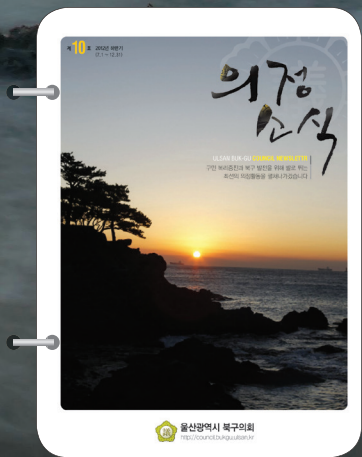
<http://council.bukgu.ulsan.kr>

Ulsan Buk-gu Council Newslettr



2012.NO 10. C.O.N.T.E.N.T.S

04	제137회 제2차 정례회 개회사
05	의원현황 및 정수
06	북구의회 연혁 및 조직
07	의정 활동 제134회 제1차 정례회 제135회 임시회 제136회 임시회 제137회 제2차 정례회
09	2012년 하반기 주요 안건처리
1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질의내용
16	사진과 함께 보는 의정활동
23	결의안,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34	사진으로 보는 의정
36	구정소식
39	의회민원상담 이용안내
40	의회방청 및 견학안내



발행일 2012년 하반기 제10호
발행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위원장
편집인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과장
발행처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과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1004-1)
전 화 052-241-8975
홈페이지 <http://council.bukgu.ulsan.kr>

존경하는 19만 구민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임진년 한해가 저물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득 품은 2013년 기사년 새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 바라는 소망은 각자 다르겠지만 구민 모두가 더 많이 웃고 더 행복해 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 새해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희망차게 다함께 열심히 뛰고 열심히 일하는 뜻 깊은 한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5대 북구의회가 개원한지도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전 의원이 초선의원으로 구성되어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동안 북구의회에 보내주신 구민들의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주민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경로를 통한 의견제시에 더 많이 귀 기울여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敬聽)하는 자세를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북구의회에서는 “주민이 행복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북구”, “주민이 계속 살고 싶은 북구”, 나아가 “타 지역에서 이사해 오고 싶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 의회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북구의원 모두는 늘 초심을 잃지 않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질을 향상하는데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여러분께서도 항상 북구의회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며,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성숙된 주민의식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올 한해에도 지난해와 다름없이 북구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길 당부 드리며, 구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윤치용**



제5대 [후반기] 북구의회 의원현황



의 장

성 명 윤 치 용

연락처 010 - 5231 - 7321

선거구 농소 2·3동

“북구의 행복한 변화 좋은 일꾼으로 기억 되도록 주민들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부의장

성 명 이 수 선

연락처 010 - 2833 - 1929

선거구 농소 2·3동

“살기좋은 희망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성 명 강 진 희

연락처 010 - 8610 - 4748

선거구 효문·양정·염포동

“주민과 소통하는 따뜻한 생활정치 펼치겠습니다”



의 원

성 명 안 승 찬

연락처 010 - 6587 - 1287

선거구 농소1·강동·송정동

“늘 주민과 함께하는 변함없는 봉사대장이 되겠습니다”



의 원

성 명 이 흥 겅

연락처 010 - 2950 - 3763

선거구 농소1·강동·송정동

“주민의 삶이 행복하도록 복지북구의 새로운 행복지킴이가 되겠습니다”



의 원

성 명 정 윤 석

연락처 011 - 835 - 6035

선거구 효문·양정·염포동

“살기 좋고 행복한 북구를 위해 부지런하게 뛰겠습니다”



의 원

성 명 이 혜 경

연락처 010 - 9448 - 1364

선거구 비례대표

“북구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 원 정 수

계	가선거구 (농소1·강동·송정동)	나선거구 (농소2·농소3동)	다선거구 (효문·양정·염포동)	비례대표
7	2	2	2	1



울산광역시 승격 및 북구의회 설치 ULSAN Buk-gu Council History

- 1997. 7. 15 초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1998. 3. 1 동구 염포동 선거구 북구 편입(8명)
- 1998. 6. 4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1998. 7. 7 제2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8명)
- 2000. 2. 21 송정동의원 사직(7명)
- 2000. 6. 8 송정동의원 보궐선거(8명)
- 2002. 6. 1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002. 7. 9 제3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8명)
- 2006. 5. 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06. 7. 3 제4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10. 7. 1 제5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임기 : 2010. 7. 1 ~ 2014. 6. 30

의회조직





■ 제134회 제1차 정례회 개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의원발의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의

제13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식이 7월 2일 오전 10시 북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윤치용 의장을 비롯한 의원, 윤종오 북구청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개회식에서 윤치용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2011회계연도 결산과 각종 의안 처리를 통해 구민의 대변자 역할을 더욱 더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당부하고, 특히 “후반기 의회에서는 전반기 의정활동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더 심기일전하여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김상곤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에 대해 강진희의원으로 부터 결과보고가 있었다.

이번 제134회 제1차 정례회는 7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6건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였다



■ 제135회 임시회 개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안건 심의

제135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최식이 9월 10일 오전 10시 북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윤치용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 윤종오 북구청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개회식에서 윤치용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충분히 수렴해 온 구민의 의사가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특히 “예산안 심사에 있어 사업 계획이 타당한 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구민들을 위해 성실히 심사할 수 있도록 당부” 하였다.

이어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종환 북구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다. 또한 '지방시설공단 설립 관련' 이흥걸 의원의 구정질문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윤종오 북구청장의 답변이 있었다. 이번 제135회 임시회는 9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원발의 조례안 11건을 심의하였다.

■ 제136회 임시회 개최

의원 발의 조례안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심의

제136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최식이 10월 15일 오전 10시 북구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윤치용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제136회 임시회는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5건과 현장방문활동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심의하였다.

■ 제137회 제2차 정례회 개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2013년도 당초예산안과 조례안 6건 등 각종 안건 심의

제13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11월 20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북구의회 윤치용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들과 윤종오 북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이번 제2차 정례회 개회식에서 윤치용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근본적인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보다 큰 틀의 정책 감사로 자리매김 할 것”과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이 구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윤종오 북구청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소통과 화합, 조화와 상생을 통하여 새해에는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고 의견을 반영한 구정운영’으로 2013년 북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시책’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내년도 원활한 정책추진을 위해 일반회계 1,821억원, 특별회계 48억원 등 금년보다 10.5% 증액된 1,869억원의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제137회 제2차 정례회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6건과 결산 추경 등을 심의하였다.

2012년 하반기 주요 안건처리



소회의실 조례안 심의장면 ↑

회기운영 현황 (2012. 7. 1 ~ 12. 31)

구 분	계		임 시 회		정 려 회	
	회 수	일 수	회 수	일 수	회 수	일 수
2012년	4	70	2	20	2	50

안건처리 현황

회 수	일 수	계	예산안	결 산	조례안	동의안 (승인)	건의안	결의안	보 고	질 문	5분 자유발언	기타
제134회 2012. 7. 2 ~ 7.16	15	15		1	6	1		1			2	4
제135회 2012. 9.10 ~ 9.24	15	20	1		12			2		2		3
제136회 2012.10.15~10.19	5	11			5	1			1			4
제137회 2012.11.20 ~ 12.24	35	20	2		7	2		1	1		3	4
합 계	70	66	3	1	30	4		4	2	2	5	15

제134회

제1차 정례회 안건처리 | 2012. 7. 2 ~ 7. 16 (15일간) |

-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행정안전부 사회복지인력확충 보완지침에 따른 증원과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기능직의 일반직 일부전환, 천곡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인력확충을 위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지방세 제증명 교부 시 인증기를 통한 날인 절차를 생략하고 『관인 및 수입증지』를 전자날인으로 발급 가능하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편익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 지역연대 구성 인원을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조례 조항 일부를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
-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을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여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자문위원회의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조례 조항 일부를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 2013년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범위와 운영, 시설이용, 운영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혜경의원 외 3인 발의) ▶ **원안가결**
 -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생활환경의 보호와 유해환경을 배제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제135회

임시회 안건처리 | 2012. 9. 10 ~ 9. 24 (15일간) |

-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이혜경의원·윤치용의원 발의) ▶ 원안가결

* 장기·인체조직등 기증을 장려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조례를 제정함.

○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승찬의원 발의)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 등 재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된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진희의원·윤치용의원 발의)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진희의원 발의)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승찬의원 발의)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흥걸의원 발의)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승찬의원·윤치용의원 발의)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수선의원 발의)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혜경의원 발의)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승찬의원 발의)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진희의원 발의)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윤석의원 발의) ▶ 원안가결

제136회

임시회 안건처리 | 2012.10.15 ~ 10.19 (5일간) |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수정가결**
 - * 지역의 열악한 문화예술진흥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하여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문화 예술 활동 활성화,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 신규 체육시설물 이관에 따른 명칭, 소재지, 주요시설 추가
 - * 체육시설(다목적미니구장) 사용료가 울산시 및 관내 타 구·군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아 타 구·군 다목적미니구장 이용자에 대한 민원해소와 구·군간 형평성에 맞게 조정
 - * 현 오토밸리복지센터·국민체육센터에서 헬스·수영 동시 신청자에 대한 2강좌 할인 혜택을 전 강좌로 확대하여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안 ▶ 수정가결**
 - * 주민의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정보교류, 교육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는 한편, 일자리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민간전문기관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
-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혜경의원 발의) ▶ 원안가결**
 - *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
-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이혜경의원 발의) ▶ 원안가결**
 - * 중증장애인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중증장애인이 지역 사회 안에서 자기 선택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제137회

제2차 정례회 안건처리 | 2012.11.20 ~ 12.24 (35일간) |

-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 수정가결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자연하천(동천)을 기준으로 설정한 법정동 경계 일부 구간이 하천 직강화 사업 등으로 현재의 하천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주민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를 조정

- 울산광역시 북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참전한 유공자의 희생에 대한 보상차원에 지원하는 명예수당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지원대상의 범위를 완화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환경부 「폐금속자원 재활용지침」 시행에 따른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처리 실정에 맞추어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기준을 변경하고,
 -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경우 종량제봉투로 배출 가능케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폐지(2011.12.16. 보건복지부훈령 제29호)에 따라 그동안 보건진료소 기금(독립채산제)으로 운영해온 제도를 일반회계로 전환·운영하게 되어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폐지(2011. 12. 16. 보건복지부훈령 제29호)에 따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구강건강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 저소득층 아동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강질환 등에 대한 예방 중심의 포괄적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행정안전부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변경)에 따른 일반직 전환 및 별정직과 일반직 정수상계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질의내용



의장 | 윤치용

-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인센티브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막대한 이자 손실 등 실질적인 효과에 대하여는 논란이 많은 상태임. 조기집행의 장점·단점과 그 효과에 대한 부분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 바람.
- 울산광역시에서 전통시장살리기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복구가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으니, 지역상인들과 협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바람.
- 달천철장 관광자원화사업이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현재 국비 확보가 어려운 상태인데, 2010. 9. 10. 주민 의견 수렴 토론회에서 농소3동 전체 주민 의견으로 현 상황에서 공원 조성을 요구하였음. 지금부터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부의장 | 이수선

- 다문화가족은 언어의 문제와 문화적 갈등을 겪고 있으며, 편견을 없애고 다문화가족이 우리의 이웃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의 활성화와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 바람.
- 농소3동 지역에 무허가 시장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은 그 만큼 주민들 수요가 많다는 것임. 쇠부리체육센터 주변에 부지를 확보하여 시장 가능 유무를 파악하고, 농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는 재래시장을 개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바람.
- 강동산하지구에 침사지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관계로 흙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 양식업을 하는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함. 앞으로 침사지 관리 상태 등 공사 현장의 환경유해 물질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어업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운영위원장 | 강진희

- 구청장 공약사항은 주민과의 약속이므로 공약사항의 변경 또는 폐기 시 그 이유와 추진과정에 대하여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추진율이 저조한 것에 대하여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 주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이 보조금집행기준에 맞지않게 집행되는 경우가 많음. 정산 및 관리 감독을 보다 더 철저히 하여 건전한 지역사회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 자활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당부.

의원 | 안 승 찬

- 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고민해보고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이 되어가는 단계로,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와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보다 더 내실있는 주민참여제 운영을 추진해 주시기 바람.
- 북구의 도서관 및 각종 사업추진에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큰 바 자원봉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에 편하게 임할 수 있게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주민 편의도 고려하여야 하지만, 외지 사람들이 장사한다거나 기업형 노점상 등 무분별한 노점 난립과 시장이 들어 서고 있음. 중소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와 사회질서 차원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바람.



의원 | 이 홍 결

- 공공시설물의 유지와 관리, 보수 등 공공서비스의 확대를 위하여 지방시설공단이 필요한데,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이유로 잠정 보류하였음. 타 지방자치단체 공단 운영의 순기능, 장점·단점 등을 파악하여 지방시설공단 설립에 대하여 적극 검토 바람.
- 강동사랑길은 숲이 우거진 지역으로 범죄에 취약할 수 있으며, CCTV 설치나 단체 협조를 받아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주민 안전과 관련하여 사전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 요소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강동사랑길을 이용하는 주민 안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 바람.
- 현수막은 계시대에 게첨하여야 하며,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는 행정에서 그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향후, 불법 광고물 단속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에서 형평성 있게 대처 바람.



의원 | 정 윤 석

- 계약직공무원 채용 시 전문경력관의 유무와 관련하여 각종 경력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검증되지 않은 경력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는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인력 채용이 요구됨.
- 보행기를 이용하는 노인 등 경로당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경로당 이용이 쉽도록 시설 개선을 검토 바람.
- 관내 운영되는 고물상 주변이 비산 먼지와 중금속 침전물 유출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건강도 위협하고 있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신고제가 도입되었는데, 고물상에 대한 신고필증이 나갈 때 부지 울타리 조성 등의 안전장치 설치를 유도하고 민원 예방을 위하여 조합 등에서 교육을 하는 방안도 대하여도 검토 바람.



의원 | 이 혜 경

- 각종 행사시 타구가 아닌 우리 북구지역 업체가 우선 참여배려하여 줄 것과 주관단체에 대한 사후 정산을 확실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또한 행사시 음식물을 포함한 쓰레기가 다량배출되니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당부
-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아직 위원회가 미구성된 현실이니 조속히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시고, 구성시 필히 장애인을 참여시켜 실질적인 목소릴 들을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람
- 대형마트 등 영업제한과 의무 휴업 추진 과정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 향후, 대형마트 등 의무 휴업 과정의 매출 변화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며,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의무 휴업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사진과 함께 보는 의정활동

01

『조례입법연구회』운영

의원들의 자질 향상과 연구하는 의정상 확립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입법연구회는 2010년 11월 5일 북구의회 다목적실에서 조례입법연구회 첫 회의를 가진 이후 월회 정기회의 및 사안별 수시 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조례입법연구회 활동은 지방분권화에 따른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들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북구의 조례 중 제정이 필요한 조례, 구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북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조례등을 제·개정하여 구민편의 증진을 통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02

북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15건 심의의결

의원 발의 1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결



북구의회는 제134회 제1차 정례회시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제135회 임시회시 의원 발의 조례안 12건, 제136회 임시회시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기에 의원 발의 조례안 15건을 심의의결 하게 된 것에 대해 "북구의회 의원들이 그동안 조례입법 연구회를 통해 북구의 조례안들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논의하여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진 조례안을 처리하게 된 것"이라며 "의원 발의 조례안을 통해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03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정책대안 제시

북구의회는 제13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사전 자료 수집을 위해 민원현장을 답사하고 현장사진을 촬영하는 등 내실있는 감사 준비를 하여왔다.

특히 북구의회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역 현장을 수차례 직접 방문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촬영한 자료 사진들을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해당부서에 보여주며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따끔한 지적을, 잘된 부분은 격려를 아끼지 않았으며, 심도 있는 사례 및 정책연구를 통하여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질을 한 차원 높였다고 평가 받고 있다.



제135회 임시회 현장활동 실시

04

당사해양낙시공원 조성사업 등 현장활동 펼쳐

북구의회는 9월 19일 오전 10시 당사해양낙시공원 조성사업 및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옹벽 복구 보강공사에 대해 현장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현장활동은 제135회 임시회 회기중 북구 관내 및 지역과 연계되어 있는 주요 사업장에 대해 사업진행사항 점검 등 의원들이 직접 현장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 등을 위해 이루어졌다. 이날 현장활동에서 의원들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점검하는 등 대상사업이 제대로 추진 및 관리되고 있는지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며 대상사업 추진에 대해 사전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등 현장 점검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사진과 함께 보는 의정활동

05

제136회 임시회 현장활동 실시

송정수변공원 조성사업 등 관내 사업장 현장활동 펼쳐



북구의회는 10월 16일 오전 10시 송정수변공원 조성사업 현장활동 등 5개소에 대해 현장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현장활동은 제136회 임시회 회기중, 제137회 제2차 정례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북구 관내 및 지역과 연계되어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해 사업진행사항 점검 등 의원들이 직접 현장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위해 이루어졌다. 이날 현장활동에서 의원들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점검하는 등 대상사업이 제대로 추진 및 관리되고 있는지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며 대상사업 추진에 대해 사전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등 현장점검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송정수변공원 조성사업과 중산목욕장 건립 공사 등 사업 완공후 주민들이 시설 이용시 편의시설 및 안전 시설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06

제136회 임시회 현장활동 실시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 관내 사업장 현장활동 펼쳐



북구의회는 10월 17일 오전 10시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현장방문활동 등 4개소에 대해 현장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현장활동은 제136회 임시회 회기중, 제137회 제2차 정례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북구 관내 및 지역과 연계되어 있는 주요 사업장에 대해 사업진행사항 점검 등 의원들이 직접 현장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위해 이루어졌다. 특히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옥동~농소2 도로 개설 공사 등 사업 준공후 주민들이 시설 이용시 편의시설 및 안전 시설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태풍 '볼라벤' 피해점검 현장활동 실시

07

제15호 태풍 '볼라벤' 피해점검 현장활동 펼쳐

북구의회는 8월 28일 오전 11시 30분 제15호 태풍'볼라벤'의 피해상황 점검을 위해 관내 시설물 및 지역들에 대해 현장활동을 펼쳤다. 북구의회 윤치용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태풍'볼라벤'의 영향으로 관내 시설들에 대해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피해 상황을 점검하며 피해상황에 대해 대책마련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의원들은 강동 당사마을 낚시공원 사업현장과 정자항 등을 둘러보고 강풍으로 인한 어민들과 어선들의 안전상황 점검 등 피해상황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였다. 이어 화봉동 오토밸리 옹벽붕괴 사고현장과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옹벽공사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추가 피해상황은 없는지 살펴 보았다. 마지막으로 태풍 폭우의 영향으로 동천강 수의 증가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안전 및 동천강을 운행하는 차량의 피해는 없는지 동천강 주변을 둘러보았다.



태풍 '산바' 피해점검 현장활동 실시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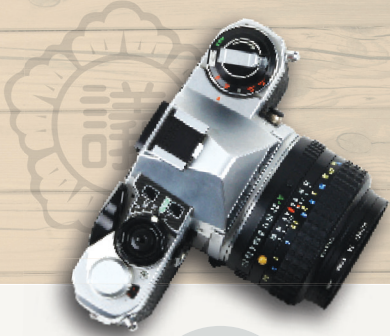
제16호 태풍'산바'피해점검 현장활동 펼쳐

북구의회는 9월 17일 오후 1시 30분 제16호 태풍'산바'의 피해상황 점검을 위해 관내 시설물 및 지역들에 대해 현장 활동을 펼쳤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관내 시설들에 대해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피해 상황을 점검하며 피해 상황에 대해 대책 마련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의원들은 진장동 침수피해 지역과 화봉동 오토밸리 옹벽붕괴 사고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관계자로부터 상황 설명을 듣고 주민 안전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사진과 함께 보는 의정활동

09

3/4분기 자원봉사활동 참여

북구노인복지관 어르신 행복식당운영 배식 지원 등 자원봉사활동 실시



북구의회는 9월 25일 오전 11시 20분 북구노인복지관에서 윤치용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3/4분기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의원들은 북구노인복지관 어르신 행복식당에서 직접 어르신들께 식사를 배식하며 인사를 나누었고,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북구의회는 분기별 1회씩 관내 시설 및 어려운 계층들을 직접 현장 방문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펼침으로써 주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피부로 느끼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있다.

10

4/4분기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천강 하천변 쓰레기 수거 등 자원봉사활동 실시



북구의회는 4/4분기 자원봉사활동으로 10월 15일 오전 11시 동천강 하천변에서 지난 태풍으로 쌓여있는 폐비닐 등 쓰레기 수거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4/4분기에는 동천강 하천변에서 폐비닐 등 쓰레기 수거를 통하여 행정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체험 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북구의회는 관내 시설 및 어려운 계층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직접 현장 방문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펼침으로써 피부에 외닿는 현장 체험활동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있다.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위문품 전달

11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외 1개소 방문 추석 위문품 전달

북구의회는 9월 24일 오후 1시 추석을 맞이하여 관내 복지 시설인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과 푸른희망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6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하였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민족 고유의 추석을 맞이하여 관내 복지 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어려운 이웃을 되돌아보고 다함께 즐거운 명절을 맞이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하였다. 의원들은 "시설이용자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배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북구의회, 2013년도 의정비 동결 결정

12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노력에 동참

북구의회는 9월 10일 오전 11시 다목적실에서 개최된 의원간담회에서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북구의회의 의정비는 2009년부터 5년 연속 동결함으로써 의원별로 연 3,887만원을 유지하게 됐다. 의정비 변경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해야 하지만, 울산 북구의회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동결기로 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게 됐다. 특히, 내년도 의정비는 지난 2년간의 공무원 보수인상율인 8.6%의 상승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담회에서는 서민을 비롯한 소외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구민과 함께 전 의원이 구민의 삶의 품격을 높여 나가는데 5대 하반기 의정활동에 중점을 두고 펼쳐나갈 것을 북구의회 전 의원이 다짐하면서 의정비를 동결에 동참하였다. 북구의회 윤치용 의장은 의정비 동결에 만장일치의 뜻을 모아준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구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력넘치는 지역경제를 만들어 나가는데 전 의원이 뜻을 모아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사진과 함께 보는 의정활동

13

월성원자력방문, 월성1호기 폐쇄 촉구서 전달

주민들의 안전이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



북구의회는 11월 20일 오후2시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 원자력본부를 방문하여 설계수명 30년이 끝나는 월성1호기와 관련하여 폐쇄 촉구서를 전달하였다.

이번 북구의회 의원 월성원자력 방문 월성1호기 폐쇄 촉구서 전달은 '설계수명을 다한 월성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고 폐쇄 요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북구의회는 월성1호기 폐쇄 촉구서를 통해 '울산 시민들의 71%는 원전의 안전성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원전의 수명 연장에 대해서는 59%가 반대하고 있으며, 월성1호기는 2012.11.20 설계수명을 만료하는 시점에서 올해만도 벌써 네 번째 고장을 일으켰으며, 사소한 원인으로도 노후 원전이 멈추는 상황에서 울산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

욱 크다며 고리1호기에 이어 또 다시 설계수명을 다한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은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북구의회는 경주 월성원전과 불과 10km 거리에 인접한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들을 대표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2012. 11. 20일로서 설계 수명을 다한 월성 1호기에 대해 가동을 중단하고 폐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하여 촉구서를 전달'하였다.

14

남창한우프라자 시설 벤치마킹 및 13년 한우공동 판매장지원사업 현장 설명회 참석

축산농가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답사 실시



북구의회 의원들은 10월 25일 오전 10시 온양읍 남창한우프라자와 언양한우 직판장 시설 벤치마킹 및 13년 한우 공동판매장 지원사업 현장 설명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현장 설명회는 13년 한우 공동판매장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북구의회 의원들과 한우협회 북부지부장을 비롯한 울산 축협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창한우프라자와 언양한우직판장 시설을 벤치마킹하고 아울러 한우직판장 시설 설치 및 향후 전망 등 사업 설명을 위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코스트코 건축허가 관련 진장유통산업단지 조합의 고발에 대한 검찰의 윤종오 구청장 불구속 기소 규탄 결의안



- 본회의 의결일 : 제134회 제1차 정례회 (2012. 7.16)
- 결의안 발의자 : 안승찬 의원

지난 6월27일 검찰은 코스트코 건축허가와 관련 진장유통산업단지조합의 고발에 대해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윤종오 북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지키고 지역 전통시장의 활성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보장된 행정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으로 할 수 있는 행정적 행위를 직권남용이라 하며 기소한다면 어느 지방단체장이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신 있는 행정을 해 나갈 수 있겠는가 묻고 싶습니다.

대형마트 문제는 중소기업의 생존권과 지역경제에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이 드러났고 이에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도 중소기업의 생존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울산 북구는 18만 인구에 대형마트가 4개나 됩니다. 이는 인구대비 대형마트 비율이 4만5천명당 1개로 전국평균인 15만명당 1개, 울산평균 7만5천명당 1개에 비하여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한 마당에 미국계 대형 창고형 할인마트인 코스트코까지 입점하게 되면 전국 최고의 입점비율이 되고 중소기업과 재래시장의 어려움은 더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실정과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살리기 위해 행정을 펼친 윤종오 구청장을 직권남용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며 정치적 탄압으로 밖에 생각 할 수 없습니다. 지방단체장의 소신행정을 직권남용으로 불구속 기소한 검찰의 결정은 법리적 해석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는 단체장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윤종오 구청장은 정해진 절차와 권한에 따라 구청장으로서의 건축허가를 반려했습니다. 북구청장의 행정적 행위에 따라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가 건축허가를 직접 내주면서 건축허가가 일단락 되었음에도 구청장의 행정적 권한을 문제 삼아 기소한 것은 무리한 법적용이고 정치적 탄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나 국회에서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마당에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반려한 윤종오 북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은 정부정책에도 맞지 않는 대형마트의 편에서 잘못된 법적용이라 봅니다.

울산 북구의회는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살리고 지역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윤종오 북구청장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를 규탄하며, 윤종오 북구청장의 불구속기소에 따른 향후 재판과정이 소신 있고 약자를 위해 일하는 지방단체장을 향한 정치적 탄압이 되지 않도록 올바른 재판이 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법이 정의와 사회적 질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 하는 바입니다.



코스트코 영업 중단 및 사업조정 자율협상 촉구 결의안



- 본회의 의결일 : 제135회 임시회 (2012. 9.14)
- 결의안 발의자 : 안승찬 의원

2010년 8월부터 시작된 미국계 창고형 대형할인마트 코스트코에 대한 논란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의 건축심의 반려와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직접 처분, 그리고 윤종오 북구청장에 대한 진장유통단지조합의 고소와 검찰의 불구속기소로 여전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지역 중소기업들과 코스트코간에도 끝없는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절박한 생존권문제에 직면한 울산지역 중소기업들은 대형마트 휴일 의무 지정과 코스트코 울산복구 입점을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스트코가 결국에는 입장을 하게 되자 중소기업체에 사업조정 신청을 통해 조금이나마 생존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는 중소기업체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의견을 무시하고 자율조정 기간인 지난 8월 31일 오픈식을 열고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울산지역 중소기업들은 생존권 보호를 위해 진장동 유통단지내 롯데마트 등 3개나 있는 대형마트가 아닌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이나 '중소상인들을 위한 물류센터 유치'를 울산시에 요청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을 해왔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울산시는 중소기업들의 코스트코 입점 반대와 진장유통단지내 다른 시설의 유치 요구를 모두 묵살하고, 2011년 8월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북구청의 건축허가 반려가 잘못이라며 직접허가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생존권보다 진장유통단지조합과 코스트코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코스트코 입점이라는 현실에서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은 코스트코를 상대로 중소기업체에 사업조정 신청을 하였고, 현재 사업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져 2차례의 자율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율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 코스트코는 중소기업체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개업을 강행하였습니다.

선례를 보더라도 다른 대형마트들은 사업조정 신청에 들어가면 영업개시 준비를 중단하고 협상에 먼저 나섰고, 상인들과의 대화에 성실히 임해왔습니다.

그러나 코스트코 측은 사업조정 자율협상 기간 중임에도 직원을 모집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언제 영업을 시작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회원 모집을 하였으며, 집집마다 우편물을 발송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하더니 결국 오픈식을 하고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울산지역 상인들이 코스트코 측에 요구하는 자율협상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매주 일요일 휴무 실시
- ② 일일 영업시간 12시간으로 제한

코스트코는, 코스트코의 입점으로 인한 울산지역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를 감안하여 지금이라도 영업을 중단하고, 사업조정 자율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건설 촉구 결의안



- 본회의 의결일 : 제135회 임시회 (2012. 9.24)
- 결의안 발의자 : 안승찬 의원

한국전력공사는 울산시 복구에 전력수요 증가를 이유로 대안 변전소, 매곡변전소의 건립과 아울러 동대산, 무룡산에 2008년부터 2022년까지 고압송전선로를 첩탐 63기를 건설하기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의 대표적인 명산인 동대산과 무룡산에 설치되는 송전선로는 빼어난 자연경관을 파괴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재산권에 피해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여 해당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무룡산과 동대산은 울산시민들이 즐겨 찾는 산으로 등산하는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와 기획재정부는 주민들의 요구를 귀담아 듣기보다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행정절차를 밟고 주민들을 개별로 접촉하면서 변전소와 송전첩탐과 송전선로를 건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변전소와 송전첩탐 반대에 맞추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지난 제107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강동권 및 농소권 변전소·송전첩탐건설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농소와 강동 주민들은 반대 대책위를 만들어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예산부족 등의 이유만으로 주민과 북구의회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지상으로만 검토하고 강행하려는 한국전력공사의 행위에 대하여 실망감과 허탈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이번 태풍 '산바'로 인하여 45만 가구가 정전상태를 맞이했으며 지상에 설치된 송전선로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있었고, 주민 불안의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많은 주민들이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밀양에서 70대 노인이 자살까지 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송전선로 지중화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건강과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 중장기적 지역발전과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한다면 지중화 정책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지상화보다 지중화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송전탑, 변전소 등 전원설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안정성 역시 논란이 있었지만 언론, 방송매체를 통해 시민 누구나 인체에 해롭고 위험한 것인지는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송전탑 건설을 위한 산사면 절개는 산림을 훼손하고 폭우 시 산사태 및 수해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보호하고 가꾸어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을 훼손하고 망치는 잘못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은 지역주민의 의견청취만 가능하지 주민의 동의 사항이 아니므로, 전원개발사업자가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일방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분쟁지역만 양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지상 송전첩탐은 지역주민의 건강권, 재산권, 환경권 등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는 지중화 계획 등 근본적인 대책은 고민하지 않은 채 경제성, 예산 운용하며 지상 첩탐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향후 지역주민들과의 심각한 마찰이 우려됩니다. 현재의 기술력을 감안하여 볼 때 고압 송전선로의 지중화 건설은 그리 어렵고 까다로운 일만은 아닙니다. 최근 광명시나 인천 청라지구를 비롯해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을 관통하는 지역은 대부분 지중화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주민들이 제기하듯이 농소권은 오토벨리도로 공사와 함께 한다면 예산과 공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제기하는 오토벨리 도로와 연계한 지중화도 시기 문제, 예산문제를 들어 회피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한전 측의 무리한 송전첩탐 건설공사 강행은 시민들의 반대와 그로 인한 갈등만 일으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와 관련해서 파생되는 2차 민원과 환경파괴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도 결코 한전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동대산, 무룡산 송전첩탐 건설계획을 당장 백지화하라.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예산부족을 핑계로 선량한 주민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입히지 말고 송전선로를 지중화로 건설하라.

하나.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역주민들의 동의권을 반영한 전원개발 촉진법을 즉각 개정하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



- 본회의 의결일 : 제137회 제2차 정례회 (2012.12.17)
- 결의안 발의자 : 강진희 의원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우리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명촌 주차장 철탑 위에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두 분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목숨을 건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살을 에는 추위와 골까지 뒤흔드는 강풍에 맞서 농성을 한 지 오늘로 62일 차가 됩니다. 그 중 한 분은 이미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철탑 위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법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법의 판결대로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 하라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급격하게 늘어나는 비정규직을 이제 좀더 줄여나가고 차별을 최소화해 나가야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대기업으로서 이런 사회적 책무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정동, 염포동에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밀집하여 거주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또한 우리 복구의 소중한 주민입니다. 법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별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본 의원은 본 결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좀더 성실하게 불법파견 특별교섭에 임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안을 내놓아서 하루빨리 정규직 전환을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본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문 -

대법원은 지난 2010년7월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최병승씨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1차 판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2004년9월 노동부는 현대차 사내하청 1만 명이 불법파견이라는 판정을 이미 내린 바 있습니다. 노동부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불복해 재상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쳐 8년 만인 2012년2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2012년5월30일 현대자동차에 판정서를 송달하고 '최병승씨를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직복직 시키고 밀린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주)는 대법원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 주문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공권력의 명령을 짓밟고 있습니다. 법의 명령을 이행치 않는 것에 반발하여 최병승씨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 1명이 현재 목숨을 건 고공철탑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도 지난 10월29일 기자간담회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과 관련해 '법적으로 결론이 난 것을 이행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일'이라며 '현대차가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불법파견 근로자에 대해 직접고용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법정 최고액으로 부과하겠다'고 현대차 처벌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제조업체에 만연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차별 없는 세상, 불법적인 비정규직이 없는 울산 복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 우리의 요구와 결의 -

- 하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현대자동차가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마음으로 불법파견으로 근무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실태 조사와 대상자에 대해 조건 없이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 하나, 정부는 이런 불법파견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 하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산업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2년 12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이상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 / 정 / 질 /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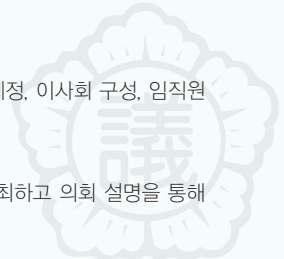


- **질문의원 : 이홍걸 의원**
- **질문일시 : 제135회 임시회 (2012. 9.10)**
- **질문요지 : 지방시설공단 설립 관련**

- **첫째.** 우리 구는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공공시설물, 즉 주차장, 체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이 유사 규모의 타 기초 단체와 비교할 시 결코 그 수에 있어서 적다고는 할 수 없는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공공시설물을 통한 양질의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 **둘째.** 현재 민간위탁 및 직영 운영 중인 공공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경영기법을 접목하여 비용절감과 생산성 증대를 통해 이익 창출, 즉 수익성 확보라는 묘를 살릴 방안에 대해?
- **셋째.** 기존의 우리 구 공무원들 중 일부를 선발하여 T/F팀 결성을 통하거나 혹은 외부전문운영기관에 의뢰하여 공단 설립의 타당성을 연구, 검토하여 그 결과 설립 여부를 결정하실 의사에 대해?

구청장 답변

- ▶ 질문하신 3가지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용역 이후 사안별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어 오늘은 포괄적으로 지방시설공단 설립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 ▶ 우리 구는 출범당시 인구 10만, 재정규모 450억 원으로 출발하여 현재 인구 18만3,000명, 재정규모 1,900억 원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며 문화, 복지 등 구민의 행복한 삶을 충족시키기 위해 체육, 문화, 복지관련 시설 또한 많이 늘었음. 이러한 단순 수치의 성장뿐만 아니라 북구민이라는 자긍심과 애항심 또한 자리를 잡게 되었음. 그야말로 지난 15년 기간동안 괄목할 성장으로 울산에서 가장 발전 가능성 높은 도시로 자타가 인정하고 있음.
- ▶ 그러나 이러한 성장과 함께 늘 고민을 하고 있는 사안이 바로 관리의 문제임. 공공시설물은 증가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 규제로 관리운영 인력을 충원하지 못해 기존 가용 인력을 줄여 재배치하고 있어 직원들의 사기 저하로 인한 공공서비스의 질이 저하될까 우려됨. 따라서 직원들의 업무량 증가로 인한 사기 저하를 막고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통합적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함.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보고 있으나 총액인건비제 틀 속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임.
- ▶ 그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중 하나가 이홍걸 의원님이 제안하신 지방시설공단 설립이라고 생각함. 공단은 설립 전에 제한된 예산과 인력을 통해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 극대화, 전문화 등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경영 개선효과, 구민에 대한 대민서비스 역량강화 방안 등 타당성이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임.
- ▶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것과 계획된 공공시설물에 대해 구 직영, 민간위탁, 공단설립 중 어느 형태가 적합한지 전문운영기관에 의뢰하여 사업장별 장·단점 비교분석을 통해 공공성과 수익성,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방안이 함께 충족될 수 있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 ▶ 이러한 타당성 검토와 병행하여 현재 공단을 운영중인 울산의 남구, 울주군을 비롯한 타 자치단체의 우수 사례 분석 후 공단설립 요건을 충족하고 우리 구 재정력이 뒷받침 된다면 긍정적으로 공단설립을 검토하겠습니다.
- ▶ 참고로 공단설립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용역, 설립심의위원회 구성·심의, 조례제정, 이사회 구성, 임직원 채용, 법인설립등기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설립 시까지 약 1년 정도 소요됨.
- ▶ 또한 이러한 추진절차와 별도로 직원과 의회와의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므로 적절한 시기에 직원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회 설명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음.



구 / 정 / 질 / 문



- **질문의원 : 강진희 의원**
- **질문일시 : 제135회 임시회 (2012. 9.24)**
- **질문요지 : 양정 · 염포지역의 주차난 관련**

→ **첫째.** 양정 · 염포지역의 주차실태와 주차장 시설 현황, 그리고 현대자동차 공장 내외 주차실태와 주차장 시설 현황에 대해?

구청장 답변

- ▶ 양정 · 염포지역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만1,161대이며, 현대자동차, 하이스코 등 기업체 부설주차장 1만8,975면을 제외한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 64면, 노외주차장 2,270면, 아파트 등 부설주차장 7,200면 총 9,534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85.4%임. 기업체 부설주차장을 제외한 우리 구 전체 주차장 확보율 111.1% 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주차환경이 아주 열악한 상태임. 양정 · 염포지역 이면도로면 주차실태를 조사한 결과 양정 · 염포지역 거주자와 지역 외 거주자의 비율이 4.5 대 5.5 정도로 지역 외 거주자의 차량 주차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남. 지역 외 거주자 차량의 경우 현대자동차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출 · 퇴근 시 주차한 차량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현대자동차 주차장 현황은 총 1만4,762면으로 회사 내 부설주차장이 9,012면이 있고, 명촌동과 효문동에 5,750면 규모의 직원주차용 노외주차장이 있음. 그러나 현대자동차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사내출입을 통제하고 공장 밖에 있는 명촌, 효문 부설주차장을 근로자들에게 이용토록 하고 있으나 주차장에서 현장까지 이동의 불편과 주차장 진 · 출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의 차량이 양정 · 염포 주택지로 유입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둘째.** 북구 어느 지역보다 불법 주차 단속에 대한 주민 민원이 많은 곳으로 짐작되는데, 양정 · 염포지역의 불법 주 · 정차 단속 건수 및 감시카메라 설치 현황에 대해?

구청장 답변

- ▶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양정 · 염포지역의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는 794건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047건임. 이는 주차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방적인 단속보다 계도위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단속 건수가 많이 줄었음. 또한 이 지역에는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3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난 9.3일부터는 울산광역시에서 시내버스(127면, 401번)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1일 4회 단속을 하고 있음.

→ **셋째.** 그동안 양정 · 염포지역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북구청에서 실시한 정책과 사업에 대해?

구청장 답변

- ▶ 이 지역은 구 도심지로 주차 공간 확보가 쉽지 않지만 유희 국 · 공유지, 내대지 등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178면 조성,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5,500만 원을 지원 88면을 조성하는 등 주민들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음. 올해에도 무질서한 주차로 인하여 차량교통에 불편함이 있던 신전시장 입구 도로정비 및 염포마을 공동주차장 확장으로 21면을 확충하는 등 주차난 해소와 차량 통행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 **네째.** 양정 · 염포지역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구청과 현대자동차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앞으로 양정 · 염포지역의 주차난 해결을 위한 북구청의 방향과 방안에 대해?

구청장 답변

- ▶ 우리 구에서는 향후 양정 · 염포지역의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과 병행하여 개별주택의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공사비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주차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2012년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 실태조사 용역 결과 및 양정 · 염포 교통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음.
- ▶ 또한 현대자동차 및 협력업체 직원들의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 감소를 위한 주차 공간 확보와 주 · 정차금지 구역 설정에 대하여는 현대자동차 및 지역주민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음.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 지역이 넓은 만큼 향후 추가 개발 잠재력이 높으므로 인 · 허가 시부터 주차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음.



5분 자유발언



- **발언의원 : 이해경 의원**
- **발언일시 : 제134회 제1차 정례회 (2012. 7. 16)**
- **발안요지 : 울산 중구, 남구, 울주군의 대형마트 영업규제 실시 촉구**

올해 1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할인마트에 대한 의무 휴업일과 영업시간을 규제할 수 있게 하여 몰락하는 전통시장 보호와 골목상권 활성화, 그리고 대형마트에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지난 2월 전주시의회를 시작으로 전국의 지자체는 경쟁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를 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60%에 달하는 133개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으며, 이 중 93%가 넘는 124개 지자체에서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과 이념을 떠나 중소기업인들의 삶이 벼랑 끝에 몰려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012년 1월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진흥원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7년간 전통시장은 178개가 문을 닫았고, 영세슈퍼마켓은 매년 4,000~5,000개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반면 같은 기간 SSM은 234개에서 928개로 늘어났으며, 대형마트의 사업체 수도 2003년 265개에서 2009년 442개로 증가했습니다. 전통시장 매출은 2003년 36조원 수준에서 매년 줄어 2010년에는 24조원까지 감소했습니다. 반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매출은 2003년 19조6,000억 원 수준에서 2010년에는 33조7,000억 원으로 전통시장보다 10조 원 가량 많았습니다. 또 SSM 매출은 2003년 2조6,000억 원에서 2011년에는 6조1,000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대형마트와 SSM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붕괴시켜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울산 북구는 인구 대비 전국 최고의 대형마트 입점률을 자랑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계 참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마저 7월 입점을 예정하고 있어 대형마트 전시장장이 되고 있고, 중소기업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울산 북구는 가장 먼저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례가 개정되어 5월부터 시행 중에 있고, 동구는 9월 시행 예정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구청장이 있는 중구, 남구, 울주군은 현재까지 논란을 거듭하며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의 시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인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으로 둘째, 넷째 일요일에 평균매출은 11.7% 증가, 평균 고객은 11.5%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북구 SSM 인근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상인은 둘째, 넷째 일요일 매출이 다른 일요일에 비해 70%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몇 달간의 의무휴업 시행으로 나온 결과에서도 보듯이 심야영업 규제와 의무휴업 시행은 유통재벌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야 없이 중소기업 보호하고자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둘째, 넷째 일요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중구, 남구, 울주군은 하루 빨리 시행하여 중소기업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개정의 취지인 중소기업 생존권과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유통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이번 7월 의회에서 중구, 남구, 울주군은 하루 빨리 의무휴업을 시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5분 자유발언



- 발언의원 : 강진희 의원
- 발언일시 : 제134회 제1차 정례회 (2012. 7.16)
- 발안요지 : 새누리당 의원들의 명분없는 의회등원 거부사태에 대하여

제13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느낀 간단한 소회를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134회 제1차 정례회 의미가 이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제5대 북구의회 전반기를 잘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힘차게 시작하는 회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2011년 결산심사를 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했습니다.

2011년 결산심사라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제4대 집행부인 윤종오 북구청장이 본격적으로 행정을 펼친 해이고, 이는 결산심사 자체를 뛰어넘어 제대로 사업을 수행하였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결산심사를 하는 제134회 제1차 정례회 때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아서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마저 방기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새누리당 의원들의 명분 없는 의회 등원 거부사태를 지켜보며 참으로 의원으로서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스러웠습니다.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통합진보당에서는 전반기 때도 그랬듯이 통합진보당과 새누리당이 서로 의장단을 함께 구성하며 화합과 통합의 제5대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부의장 선거에도 아예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타 구·군은 의장단 선거로 시끄러울 때 북구의회는 모범적인 의장단을 구성했다고 자부합니다. 그게 주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했기에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부의장 자리만 꿰차고, 화합과 통합의 정신을 저버린 채 말도 안 되는 억지로 등원거부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서 자신을 믿고 지지해 준 주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것도 주민 위에 있을 수 없으며, 어떠한 것도 주민보다 우선일 수 없습니다. 자신의 당리당략 때문에 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마저 저버린 새누리당 의원들은 먼저 동료의원들과 주민들 앞에 깊이 사죄해야 하고, 제5대 북구의회 후반기를 비정상적으로 시작하게 한 것에 대해 깊은 반성과 자성의 시간을 갖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 **발언의원 : 안승찬 의원**
- **발언일시 : 제137회 제2차 정례회 (2012.12.17)**
- **빌안요지 : 실효성 없는 예산조기집행 재검토와 주민중심의 예산 정책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본의원은 2012년 울산북구의회 행정 사무감사에서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회복 등의 이유로 실시된 정부의 예산조기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예산을 낭비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조기집행은 정부주도로 2009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중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고 연말에 발생할 불용 등을 최소화하고 재정 지출의 효과를 보겠다는 취지로 실시되었습니다. 정부는 정부부처 및 공기업, 지방정부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말하며 조기예산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기 예산 집행은 효율적 집행이나 재정 운영 원칙을 벗어나더라도 당해 6월 이전에 예산의 60%를 지출하고, 70%까지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기 집행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나서서 막아 주겠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획일적인 집행 독려는 예산 낭비와 탈법·불법 집행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을 공기업이나 다른 지방단체에서 하듯이 우리 구 또한 조기집행예산에 2010년부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 결과 우수한 실적으로 포상사업비도 특별교부세 2억5천만원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적에 대한 우수함과는 달리 조기예산집행으로 이자수입이 조기예산집행 전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9억1천만원 정도 이자손실이 생겼습니다. 포상사업비를 빼더라도 6억6천만 원을 손해 본 것입니다. 표에서 나타나듯이 3년간 손해 본 금액은 2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이자수입	1,983백만원	1,510만원	517만원	618만원	833만원(예상)
총예치금액	47,500백만원	36,500백만원	13,500백만원	19,500백만원	37,500만원

이러한 현상은 이번 광주광역시 국정감사에서도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가 2009년 이후 재정 조기집행으로 118억 원의 이자손실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듯이 전국적인 현상이며, 많은 사람들과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도 확인하면은 마찬가지로 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 이후 우리 구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자주적인 재정 운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6억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번 2013년 예산심의에서 주민참여예산제 동별 주민 요구 사항으로 올라온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동마다 6천만원, 총 4억8천만원 정도가 책정되었고, 이 예산으로 동별 3개 이상의 사업을 한 것을 볼 때 6억이라는 예산은 결코 작지 않은 예산인 것입니다.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 개선되기도 힘듭니다. 지방자치라고는 하지만 “재정”과 관련해서는 국, 시비와의 매칭 사업비부터 시작해서, 교부세 의존, 예산조기집행 방침에 이르기까지 “자치”라는 말이 무색할지경입니다. 재정 문제의 개선을 위해 지방세 및 교부세 확대와 같은 요구도 지속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이는 국가 결정사항이므로 지자체 자체 역량으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자체증세에 대한 결정도 국민정서상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입확대를 위해서는 주민손실 내지 추가부담이 없는 세외 수입 확대에 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 부분이고 한해 조기예산집행이 아니면 6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히 보면 9억원의 돈을 손해 보는 것입니다. 올해 예산심의를 마치는 시점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혈세가 주민들 위해 사용되고 낭비되는 경우가 없도록 예산정책에 각별히 신경을 기울여 주시고, 앞서 말한 조기예산 집행으로 이자수입이 손해를 입는 것에 대하여 “자치” 시대에 맞게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예산정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집행하기를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 **발언의원 : 안승찬 의원**
- **발언일시 : 제137회 제2차 정례회 (2012.12.17)**
- **빌안요지 : 우리구 문화재와 울산 북구 출신의 역사적 인물에 대하여**

본의원이 2012년 울산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구 문화재와 출신 인물에 대한 사진자료와 더불어 문제점의 지적과 개선방향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구의 문화재와 인물을 잘 보존하고 관리, 홍보하여 지역 발전과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는 소중한 문화유산과 구 출신 위인들이 계십니다. 문화유산으로는 신흥사(구) 대웅전, 박상진 의사 생가, 대안동 쇠부리터,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강동화암주상절리, 곽암(미역바위), 관문성, 우가산 유포봉수대, 유포석보, 창평동 지석묘, 중산동고분군, 상안동 지석묘, 중산동 취락 유적, 매곡동 생활 유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를 빛내는 역사적 인물로는 일제강점기 독립투사 박상진 의사,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화에 중요한 의미와 교훈을 주고 있는 4.19혁명의 정임석 열사, 임진왜란 때 기박산성 의병, 효자 송도선생과 나라를 구하기 위해 평생을 바쳐 쇠를 발견하여 무기를 만들어 나라에 바친 구충당 이의립 선생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우리 역사적인 문화재와 인물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소중하게 인식하고 체계적인 관리, 자료의 확보와 정리 작업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며, 문화재와 역사적 인물들에 대하여 형식적 관리와 추모행사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문화재를 잘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길이길이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하며, 이를 활용하여 주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문화재보호법"이 있고 우리 구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는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자산이면서 우리가 후대에게 잘 보존하여 물려 줄 유산이며,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존은 형태의 보존도 중요하고 자료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의 우리 주민들이 그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잘 알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문화재의 가치, 소중함을 알아야 보호도 되고 교육도 되면서 조상으로부터, 우리 그리고 후대에 후대를 이어 물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 구 문화재를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복원할 것은 복원하면서 주민들이 즐겨 찾는 관광 자산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한 분의 주민이 중산동 관문성을 찾아 가보니 성을 찾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도 중산동 관문성 안내판을 보고 찾아 갔지만 관문성을 알아 볼 수 없었습니다. 주민들에게 물어 보니 여기 저기 돌을 가리키면서 저것이 관문성이라 하더라고 안내 하는 정도입니다. 안내판을 붙였다면 최소한 그 장소에 설명판을 설치하여 찾아오는 사람이 흔적이라도 볼 수 있고, 위치라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안내판을 붙이지 않은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유산에 대하여 제대로 정비하고 관리하여 찾는 사람들이 역사적 흔적과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여 실행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 출신의 역사적 인물에 대하여도 추모행사에 머물지 말고 우리 주민과 학생들이 그 분들의 삶과 뜻을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행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제 강점기 나라를 구하기 위한 박상진 의사의 경우, 부유한 집안과 검사라는 직을 모두 버리고 투자하여 독립운동에 나선 애국자이십니다. 대한광복군의 총사령관이신 박상진 의사의 자료를 역사적으로 연구하고, 자료를 찾아 정리한다면 다른 독립운동하신 분들처럼 알려질 수 있고, 우리 구를 빛내는 분으로 활용될 수 있고 주민들의 자부심과 긍지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일어난 민중들의 4.19 혁명에 참석하여 어린 나이에 순국하신 정임석 열사도 울산에서 유일한 4.19 혁명의 열사이신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북구를 빛내는 분으로 될 것입니다. 우리 구는 정임석 열사가 우리 구 출신이라는 것으로 4.19 민주화의 상징으로 울산에서 북구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며, 박상진 의사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 주실 분입니다. 또한, 임진왜란 때 기박산성의 의병에 대해서도 기박산성뿐만 아니라 의병들의 이야기를 잘 정리하여 기박산성, 관문성으로 이어지는 견학과 관광코스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구 출신의 인물에 대하여 한분 한분의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책도 만들고, 전서관에 전시도 하는 등 그 분들의 흔적과 삶을 우리 구 주민들이 배우고 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입니다.

본의원의 발언이 우리 구 문화재와 출신인물의 보존과 지역 발전의 자산으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의 발판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 **발언의원 : 이수선 의원**
- **발언일시 : 제137회 제2차 정례회 (2012.12.17)**
- **발안요지 : 2013년 예산편성에 대하여**

저는 2013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중요한 사업들이 우선순위에 밀려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접하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 예산액 1,692억원보다 10.48%증액된 1,869억이 2013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에는 전년도 90억보다 37.43% 증액된 12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개설에는 전년도 예산 69억 2천만원보다 51.43% 감액된 33억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이 1,869억 6천만원입니다.

북구 전체 도로 개설 관리운영 비용으로 총 예산의 1.8%인 33억 6천만원이 편성 요구 되었습니다. 북구는 면적이 넓고 곳곳이 도시화 되면서 개발로 인한 소방도로의 개설욕구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관리해야할 도로 또한 해가 갈수록 늘어나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게 현 실정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중요도에 비해 전체 예산에서 너무 적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북구 전체 예산이 10.48% 증액되고 있는데, 도로개설 관리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51.43% 감액된 69억에서 33억으로 대폭 감액되어 편성 요구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북구의회 의원으로서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북구 지역은 급격하게 개발 발전되고 인구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시 인프라 사업은 주춧돌을 놓는다는 심정으로 쉬지 않고 꾸준히 투자하고 건설하여 쾌적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게 행정을 담당하는 모든 분들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재정속에서도 문화와 관광은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구에는 잠시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공연과 콘서트 등 각종 문화 행사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구 전지역의 1년간 도로개설 관리운영비가 33억 6천만원인데 비해 명촌 공원과 신천 지역에 물놀이장 개설과 운영비로 12억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곳곳에서 물놀이장 개설 욕구가 팽배할 걸로 예상됩니다. 두 곳에 12억이면 8개동이면 48억이 소요되고 해마다 많은 예산이 관리 운영비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지역은 물놀이장을 만들어 주고 어느 지역은 만들어 주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방자치 단체장인 구청장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예산이 시급성과 당위성이 있으며 사업우선 순위에 들어가는지를 판단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2013년도 예산이 2012년에 비해 10.48% 늘어난 1,869억인데 반해 도로개설 관리비용은 전년대비 51.43% 줄어든 33억 6천만원으로 전체예산 1.8% 수준의 아주 적은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물놀이장 개설비로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연 어떤 사업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는 누구나 판단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구의 도시 인프라와 발전에는 관심이 없고, 선심성 퍼주기식인 사업에 관심이 많은 것은 아닌지 염려됩니다.

날로 인구가 늘어나고 곳곳이 개발되고 있는 북구의 현 실정을 감안할 때 수송 및 도로 교통이 북구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관심과 더불어 북구 발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과감한 예산 편성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팔각정 (락민정) 현판식 개최 (2012. 8. 21)



▲ 제3기 커뮤니티비즈니스 학교 개강식 개최 (2012. 8. 27)



▲ 제135회 임시회,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옹벽 복구 보강공사 현장활동 (2012. 9. 19)



▲ 제1회 강동사랑길 걷기대회 개최 (2012.10. 7)



▲ 북구종합사회복지관 증축 준공식 개최 (2012.10. 9)



▲ 제13회 구민한마음 생활체육대회 (2012. 10. 14)



▲ 제136회 임시회, 중산목욕탕건립공사 현장활동 (2012.10. 16)



▲ 2012년 울산 북구의 책 가시고백 독후 활동후기 및 독후감 공모 우수 시상식 (2012.10. 16)



2012 / 7.1 - 12.31
PHOTO Council



▲ 제5회 울산 북구 농·도 한마당 큰잔치 (2012. 11. 3)



▲ 제8회 울산광역시 선출직 친선 체육대회 (2012. 11. 9)



▲ 북구새마을회 사랑의 감장담아주기 행사 개최 (2012. 11. 26)



▲ 북구의회 2012년도 종무식 개최 (2012. 12. 26)



▲ 환경미화원 정년 퇴임식 개최 (2012. 12. 27)



▲ 명촌어린이도서관 개관식 개최 (2012. 12. 27)



▲ 2012년 북구청 종무식 개최 (2012. 12. 31)





구정소식

무엇이든 열심히 복구! 상복 터졌어요

복지 분야 3개 상 등 총 9개 분야에서 수상 잇따라

복구는 지난해 행정 전반에 걸쳐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리며 대외적으로 큰 호평을 받았다.

특히,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은 2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복지 분야에서는 대통령상을 비롯해 총 3개 상을 휩쓸었다. 또,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일반행정과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등 총 9분야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실시한 가운데, 지역 5개 구군 가운데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무엇보다 복지 분야의 성적이 단연 두드러졌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3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분야 평가를 실시해, 울산 복구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대통령상을 수여했다. 또, 지난해 4월부터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으로 대상자별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사회와의 연계로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한 결과,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자체 복지평가에서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복지번지 복구 실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한 해였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대통령상

2012 기관수상 현황

분 야	평 가 기 관	수 상 내 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고용노동부	대통령상
기초생활보장분야	보건복지부	대통령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행정안전부	최우수상
예산운영의 주민참여 활성화	행정안전부	장 관 상
일자리 공시제	고용노동부	장 관 상
청소년자원봉사	여성가족부	장 관 상
복지사업 종합평가	보건복지부	장 관 상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보건복지부	장 관 상
지방재정 조기집행	행정안전부	장 관 상

2013 신규시책

“땀띠 해!, 땀의 지혜를 담아 행정서비스 UP↑”

땀띠 해를 맞아 북구청은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생활과 밀접한 각종 민원뿐 아니라 경제, 복지,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한 층 업그레이드 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주 민 생활



• 도심공원 내 물놀이장 설치

여름철 멀리 가지 않고 도심속에서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도심공원 내 물놀이시설이 설치된다. 명촌근린공원과 신천어린이공원에 들어설 물놀이장은 지역민에게 기존 공원이 가지고 있는 편안한 휴식처뿐 아니라 색다른 재미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공동주택 입주민 간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서로 정을 나눌 수 있는 열린 공간의 마을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커뮤니티 사업을 진행한다. 주요 사업으로 관내 9개 단지 40,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참여형 교육과 봉사활동, 문화·체육행사, 보육 등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우수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 제



•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시범 실시

시간 부족 등으로 직접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없는 고객을 위해 전통시장 배달서비스를 실시를 통해 상권활성화에 나선다. 우선 호계시장을 중심으로 전화주문 등 전통시장 구매품품 배달 인력을 지원해 시범 실시하며, 평가를 거쳐 확대할 계획이다.

• 대형마트 내 ‘지역 생산품 코너’ 개설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지역 내 대형마트에 관내 생산품 코너를 마련, 소득증대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 대형마트 및 농산물 작목반, 사회적기업이 참여해 협약을 체결하고 빠르면 오는 5월부터 지역 생산품 코너를 운영할 계획이다.

• 기업 ‘氣살리기 프로젝트 ‘氣 UP!’

경영여건이 열악한 960개 중소기업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기업사랑 실천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한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북구의 좋은 기업’ 지정하고, 창업 15년 이상된 기업에 대해서는 향토기업으로 감사패를 증정할 계획이다.

복 지



• 어둠을 밝히는 ‘북구 희망지기’ 운영

북구 희망복지지원단은 사업목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둠을 밝히는 ‘북구 희망지기’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월 2회 야간 운영을 하는 ‘이동 희망복지지원단’ 운영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빈곤 해결에 앞장설 계획이다.



복지



• 지체·뇌경변 중증 장애아동 유모차 지원

올해부터 저소득 중증 장애아동에게 의료용 유모차가 지원된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가정의 18세 이하 중증지체 및 뇌병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10명에게 유모차를 구입, 전달할 예정이다.

• 사랑나눔 미용봉사대 운영

관내 요양시설 등에 생활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미용봉사대가 운영된다. 3개 반 15명으로 구성되는 봉사대는 매월 1회 요양시설을 찾게 되며, 오는 3월부터 올해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올해부터 만18세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보건사업이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아동·청소년에게 예방 및 치료를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자살예방과 사례관리 등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구강건강관리를 실시한다. 올해 말까지 총 25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사업은 지역 치과병의원과 연계해, 전문적인 치료를 펼친다.

문화



• 아트 컨테이너 도서관 조성

매곡동 일대에 들어설 아트 컨테이너 도서관은 신항주거지역임에도 문화공간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인근 두백이공원과 조화를 이루며 공동체 회복의 중심공간이자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오는 5월부터 조성에 들어가는 컨테이너 도서관에서는 도서 1,500여권과 열람실 등을 갖추게 된다.

• 강동사랑길 관광 전국 사진공모전 개최

천혜의 자연경관뿐 아니라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이야기 길인 강동사랑길을 전국에 알리기 위한 전국 규모의 사진공모전이 열린다. 이번 사진전은 오는 3월부터 4월말까지이며, 강동사랑길을 소재로 한 미발표작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 (가칭)농소1동 문화체육센터 건립

호계동 (가칭)농소1동 문화체육센터는 오는 2015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소권의 문화복지의 중심이 될 문화체육센터는 지하 1층, 지상2층 규모로 체육관 및 소규모 공연장을 갖추게 돼, 주민 건강증진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제12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제12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가 오는 10월 구청광장 및 오토밸리 복지센터,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전국 지자체의 주민자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전국대회 개최를 통해 우리 구의 자치 역량을 새롭게 다지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전국에서 15만 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는 '보여주시 식'의 기존 박람회에서 탈피, 참여 중심의 박람회가 될 것이다.



의회 민원상담 안내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과 소통하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구정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하여 주민의 각종 민원사항을 접수받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 수 10:00 ~ 17:00 (토, 공휴일 제외)
방 법 민원인과 해당 지역구 의원과의 직접 상담 또는 현장방문
내 용 각종 민원 불편, 애로사항 상담 및 처리, 각종 여론 수렴
 ※ 의원 부재 시에는 전문위원실(5층)에서 접수
 전화 : 241-8982 팩스 : 241-8989

농소2·농소3동	농소2·농소3동	효문·양정·염포동	농소1·강동·송정동	농소1·강동·송정동	효문·양정·염포동	비례대표
						
의 장	부위원장	운영위원장	의 원	의 원	의 원	의 원
윤 치 용	이 수 선	강 진 희	안 승 찬	이 흥 걸	정 윤 석	이 혜 경
의장실 : 241-8900 010-5231-7321	부위원장실 : 241-8910 010-2833-1929	사무실 : 241-8950 010-8610-4748	사무실 : 241-8920 010-6587-1287	사무실 : 241-8930 010-2950-3763	사무실 : 241-8940 011-835-6035	사무실 : 241-8960 010-9448-1364

※ 의회 방문 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담시간을 사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http://council.bukgu.ulsan.kr>

전 화 241-8982
 F A X 241-8989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1004-1) 5층
 홈페이지 council.bukgu.ulsan.kr





북구의회의 주인은 주민 여러분입니다.

북구의회는 주인이신 주민여러분께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의회방청을 희망하시는 주민께서는 의회사무과에 신청하시면 회의진행과정을 생생하게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 의회사무과(241-89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